

불쌍한 사람들은 차고 넘친답니다

...

아니 어찌다가 점잖으신 이모님께 반감을 사셨을까요?

.....그건

부인 잘못이지요.”라고 짧게 말을 끊어가며 딱딱한 대답만 할뿐이었지.

라 투르 부인은 애통함에 가슴이 미어져, 한가득 설움으로 웅어리진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네. 집에 오자마자 부인은 자리에 앉아 식탁 위에 이모님의 편지를 던져 놓고는 친구에게 말했어.

“이게 11년을 참고 기다린 결과라네요.”

하지만 집안사람 중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라 투르 부인밖에 없었기에, 부인은 편지를 다시 집어 들고 온 가족이 모인 앞에서 그것을 읽었지. 편지를 다 읽자마자, 마르그리트는 격한 목소리로 부인에게 말했네.

“당신 친척들이 우리한테 무슨 필요가 있어요? 신이 우릴 버리길 했나요? 하느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이신 걸요. 지금까지 우리 행복하게 살아오지 않았나요? 그런데 왜 슬퍼하고 있어요? 당신은 정말 용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던 중에 마르그리트는 라 투르 부인이 우는 것을 보고, 부인의 목에 매달리듯 몸을 던져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외쳤네.

“사랑하는 친구, 내 소중한 친구!”